

#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 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

김영봉\*

## 1. 시의 적절한 기획

필자는 수많은 종류의 ‘해설 성서’들이 편찬되고 그것들이 아무런 비평적 검토 없이 신자들의 손에 들려지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이 해설 성서들은 저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왜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가? 그 제작 과정을 보면 그 대답을 알 수 있다.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가 주(註)를 쓴 것이 아니라, 값싼 인력을 동원해서 여러 참고서를 짜깁기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자들을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인도하기 위한 충정(忠情)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여 급조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註)의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가 입는다. 일반 신자들은 해설의 내용을 검토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사꾼들의 감언이설에 홀려 책을 구입하게 되고, 그 설명을 읽고 그런 줄 믿는다. 이러한 맹목적 믿음이 때로는 성서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신자들이 해설 성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더 괴롭다. 때때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설을 들이대면서, ‘왜 당신의 설명은 이것과 다르나?’고 따져 묻는다. 이럴 경우, 목회자들은 그 해설 성서들을 다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드는 경우는 차라리 낫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註)와 담임목사의 설명이 다를 때, 권위를 책에 두고는, 성서 해석자로서 목회자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책임 없는 장사꾼들 때문에 교회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 성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차였다. 물론, 출판업자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겠지만, 누군가 혹은 어느 단체에 선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대한성서공회에서 기존의 해설 성서들을 대치할 수 있는 좋은 해설 성서를 출판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아주, 시의 적절한 기획이라고 할 만하다.

1997년에 독일성서공회에서 발행한 해설 성서를 번역하여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를 발행하였고, 이어서 2001년에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발행한 해설 성서를 번역하여 『굿뉴스 스터디바이블』을 발행하였다. 이 두 해설 성서는 주해자의 실명이 분명히 밝혀져 있으며, 독일성서공회판의 경우에는 번역에 참여한 국내 학자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 둘 다 공인된 성서공회에서 출판된 것이라는 점이 독자들을 안심케 해 주며, 동시에 이것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하여 발행했다는 점도 또한 큰 신뢰의 바탕이 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 획기적인 기획을 평가하여, 두 해설 성서가 어떠한

\* 협성대, 신약신학.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그 동안 필자는 개인적인 영성 생활 중에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신약 전체와 구약의 시가서와 예언서를 완독하였다. 그리고 영어판 해설 성서의 경우에는 신약의 일부를 읽었다. 필자가 이 두 권을 읽은 것은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는 것과 똑 같은 목적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영적 노력으로써 읽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 이 두 책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편의상, 두 권을 따로 나누어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 2.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

### 2.1. 장점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웬만한 주석에 비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세하고 깊어 있다. 각 책에 대한 개론적 설명도 충분하고, 지난 3백년 동안의 학문적 연구의 결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개론적 설명 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재편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성서개론'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이 충실하다.

각 단락이 끝난 후에 붙여진 해설은 주로 신학적 해설에 치중한다. 물론, 때로는 문학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고, 역사적인 문제도 논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풀어 준다. 이 신학적 주석은 본문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많이 해결해 준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한 단락의 신학적 의미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방대한 주석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아마도, 시간에 쫓기는 설교자들은 이 해설만 참고하더라도 주석적인 근거를 최소한이라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본문의 주(註)에는 어휘 설명이 없는데, 그 이유는 책의 마지막에 첨부된 '용어해설'에 한 데 묶여 있기 때문이다. 성서 안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은 수 없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용어해설'을 따로 묶어 둔 것은 아주 좋은 착상이다. 그리고 각 용어에 대한 해설도 역시 그 내용이 충실하다. 웬만한 '신학용어사전'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관련성구를 표시하는 방법도 매우 요령 있는 방식을 개발하였다. 중요한 관련 성구들은 본문 해설에서 다루어 주고, 참고되는 성구들은 본문 아래에 표시해 넣었다. 사실, 관련 성구들은 전문적인 연구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큰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아주 좋은 기획을 하였다고 본다.

### 2.2. 단점

하지만 이 해설판은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이 있다. 우선, 독서 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큰 단락에 대한 문학적 개관(overview)이다. 이 해설판은 하나의 책을 큰 단락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작은 단락으로 나누어 해설하고 있다. 하지만 큰 단락 전체에 대한 문학적 개관은 작은 단락에 대한 해설 안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아마도 역사적, 신학적 해설만을 강조하는 독일적 주석 학문 경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은 단락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다시 말하면, 이 해설판은 주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원자론적으로 접근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거시적인 혹은 통전적인 접근이 보완되어

야 하고, 그것이 보완되어야 독자는 하나의 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해설판을 사용하면서, 주(註)의 내용을 분리하여 편집했으면 독자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해설판은 하나의 단락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하나로 묶어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설을 모두 다 읽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문 읽기'와 '본문 해설'을 나누어 놓았다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본문의 용어 해설이나 번역의 문제 혹은 지명이나 인명의 문제 등은 난하주(欄下註)로 처리하여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신학적인 해설만은 단락 끝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했다면, 독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이 해설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독일에서 편찬된 해설서의 번역판이라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해설에 자주 등장하는 '루터 번역'에 대한 언급은 우리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혹은 번역 문장이 어색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자주 발견되었다. 해설에서 독일식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 독자에게는 어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은 이 해설이 독일에서 독일 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우리 독자에게는 불필요하게 느껴질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이 해설이 신학자에 의해서 쓰여지고 우리의 번역도 역시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된 용어들이 매우 전문적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전문적인 용어들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 필자같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용어들이 낯설지 않지만, 일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그 말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경우에도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서신의 저자는 옛 언약과 그 규정들(율법)의 잠정성과 그림자적 성격을 거듭하여 강조한다'(히 10:1-4에 대한 주)는 문장을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잠정성'이라는 말 혹은 '그림자적 성격'이라는 말을 일반 독자가 파악할 수 있을까? '그림자적 성격'은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은 말이다.

### 2.3. 종합적 평가

결국,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어느 정도의 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을 위해서 매우 좋은 도구다. 또한 이 해설서는 본문의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진지한 독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신자들에게 이 해설서를 읽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그들에게는, 해설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본문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목회자와 신학도들의 참고 문헌 가운데 하나로서 귀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 3.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 3.1. 장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우선 '판짜기'를 아주 잘 했다. 각 책에 대한 세밀한 개론적 설명이 관련된 참고 자료들과 함께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 들어가서 큰 단락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다. 이것은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어서 작은 단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매 단락 앞에 제시되어 있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가 각 단락의 끝에 해설을 붙여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해설은 신학적 주석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역사적 설명이다.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미리 알려 준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정보들은 난하주로 처리하였다. 용어설명, 관주, 본문비평상의 문제, 신학적 설명 등이 이곳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판짜기는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판짜기보다는 훨씬 더 ‘독자친화적’(reader-friendly)이다. 특히, 현대를 가리켜 ‘디자인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이와 같은 판짜기는 매우 큰 매력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려운 구절에 대한 설명이 따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독자로서 성서를 읽으면서 겪는 문제는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 자신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한 단락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註)를 읽는 횟수보다는, 어느 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를 참고하는 횟수가 월등히 더 많았다. 따라서 문제되는 어구나 문장을 해설해 주지 않는 주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면,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서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어휘들의 경우, 『굿뉴스 스테디바이블』도 역시 책 끝에 부록으로 ‘용어해설’을 첨부해서 처리했다. 각 용어에 대한 해설이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해설보다 부실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더 용이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명과 인명에 대한 ‘찾아보기’도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틈틈이 제공해 준 지도들과 도표들도 역시 꽤 도움이 될 수 있다.

### 3.2. 단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독자층을 일반 신자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시작한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의 내용이나 깊이가 그리 충실하지 못하다. 본문을 읽으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표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초적인 안내를 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서 이 해설서를 읽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본문 앞에 붙어 있는 해설도 불충분하고, 난하주에 있는 해설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볼 때, 문제는 난하주에 있다고 판단된다. 본문 앞에 첨부한 해설은 일종의 ‘독서 안내’(reading guide)로서 충분하다. 그 정도의 안내는 있어야 본문을 읽는 데 도움을 삼을 수 있다. 문제는 난하주에 첨부되어 있는 해설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데 있다. 난하주에서는 주로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하나는 용어 설명이다. 그러나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부록을 보라는 표시만 나와 있다. 때로는 난하주 전체가 부록을 보라는 표시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록의 ‘용어해설’을 보면, 그 용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만 설명되어 있지, 특별한 책, 특별한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련 성구를 난하주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처럼 간략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뿐 했다. 불필요한 지면을 낭비하고 말았다.

난하주에서 독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문제되는 어구에 대한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독자가 의문을 가지는 어구와 난하주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구가 거의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물론, 독자들이 의문을 제기할 만한 구절들을 모두 파악할 수도, 그것을 모두 해설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유점은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 필자가

독자로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난하주의 설명은 거의 대답을 주지 못했다.

### 3.3. 종합적 평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평신도 용으로 아주 적합하다. 물론, 이 말은 평신도들의 지적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니다. 수많은 신학 전문 용어들을 무신경하게 사용하고 있는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에 비하여 매우 일반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해설 내용도 꽤 평이하다는 점에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독자들에게 적합하다는 뜻이다. 특히, 이 해설서는 개역 개정판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판짜기가 매우 신선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깊이 있는 신학적 탐구가 필요한 전문가들(목회자나 신학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4. 두 해설 성서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본다면, 두 해설 성서는 성격적으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신학적 해설을 제공해 주고,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일반 독자들의 독서를 돕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전문가의 연구용으로 더 적합하고,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일반 독자용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평가는 앞으로 이 두 책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책을 펴낸 대한성서공회 측으로 볼 때에도 두 기획의 성격이 동일하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기획이 이렇듯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책은 그 존재 이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두 책을 기획한 당사자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두 해설 성서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용어해설의 문제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어떤 특정의 용어는 저자에 따라서 혹은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영광’이라는 용어가 출애굽기에서 뜻하는 바와 요한복음에서 뜻하는 바가 같을 수 없다. 그런데 두 해설서의 ‘용어해설’을 보면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전적인 의미만을 밝혀 놓았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본문 해설 과정에서 그러한 차이점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지만,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용어해설’에 들어있는 용어들을 난하주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두어 참고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특별한 맥락에서는 중복되는 경우라도 굳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두 해설서가 모두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에 대한 해설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원문이 우리 말로 번역되면서 어쩔 수 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경우, 혹은 우리 번역에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혹은 우리 문장의 구조상 문장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독자로서 필자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은 주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필자는 헬라어 원문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독자들의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독자가 도움이 필요한 구절과 해설서가 제공해 주는 도움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자들이 우리의 독자들을 위해서 우리말 성경을 놓고 만든 해설 성서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 5. 한국판 해설 성서를 위한 제안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해설 성서가 발간될 경우를 위해서 독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한국판 해설 성서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지만 이 일은 필히 성사되어야 할 일이다. 천주교는 이미 200주년 기념 해설 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아직 신약만 완간되었지만, 그 기획은 실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인 역작이다. 하지만 천주교의 해설 성서는 매우 전문적이다. 일반 독자가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자세하고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두 가지의 해설 성서를 번역 출판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해설 성서 완결편’을 만들어 내면 한국 교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신학도들을 가르치면서 꾸준히 성서를 붙들고 씩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해설 성서가 더욱 간절히 기다려진다. 그 기획을 예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 5.1. 본문 해설에 대하여

우선, 한국판 해설 성서를 기획할 때, 판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판을 짜는 데 있어서 미관(美觀)도 고려해야 하고, 지면 사용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독자의 독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해설 성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독자가 본문을 가장 쉽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이다. 미관상의 문제와 지면의 효율적 사용의 문제는 출판인들의 기술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필자는 여기에서 독자의 독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판짜기를 제안하도록 할 것이다.

#### 개론

성서의 각 책 앞에 개론적인 안내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모두 좋은 ‘개론’을 각 책 앞에 달아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경우에는 구약성서 맨 앞에 ‘구약개론’을, 신약성서 맨 앞에 ‘신약개론’을, 그리고 각 문서 군(群) 앞에 또 다른 개론(‘오경개론’, ‘예언서 개론’, ‘복음서 개론’ 등)을 첨부해 놓았다. 이것은 성서를 좀 더 깊이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론적인 안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전통적인 ‘개론학’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두 해설 성서의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개론학’은 각 책의 저자,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저작 이유 등에 대한 역사적 규명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의 경우 이러한 개론적 판단에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러한 정보가 실제로 그 책을 읽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책의 개론에서는 그 책을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그 책을 읽을 때 어떤 점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학문적 개론서의 축소판을 만들지 말고, 독자의 독서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독서 안내’(reading guide)를 제공해 주라는 말이다.

#### 큰 단락에 대한 안내

본문 해설에 있어서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큰 단락에 대한 안내'다. 이것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 잘 해 놓았다. 하나의 책을 큰 단락으로 구분하여, 그 단락 안에서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미리 안내하는 것이다. 주로, 문학적 분석에 근거한 독서 안내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독자가 그 안내의 틀 속에 갇혀 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 해설서가 일반 독자를 위한 안내라고 한다면,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이미 얻어진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충실하게 안내해 주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독자들이 숲 속을 헤매면서 나무만을 보는 잘못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작은 단락에 대한 안내

그런 다음, 작은 단락에 대한 문학적 안내가 있어야 한다. 작은 단락은 현재 개역개정판의 표제를 기준으로 하면 무난하리라고 본다. 이 안내는 그 단락의 표제 아래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경우, 문제는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아 놓고 있다는 데 있다. 본문을 읽기 전에 그 본문을 모두 해설해 버리면 독서 결과에 지나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락을 읽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전 이해를 돕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려면 문학적 구조와 특징 혹은 독서 방식에 대한 간략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작은 단락에 대한 안내'는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분량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한다.

### 작은 단락에 대한 신학적 해설

독자로서의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한 단락을 읽고 나서 그 단락의 의미에 대하여 묵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학적 해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가 이런 방식을 취했다. 다만,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그 해설 속에 모든 것을 다 넣어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깨알같은 글자를 모두 읽어야 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다 읽어도 찾으려는 해답은 없다! 우리 독자의 문제 의식에 근거하여 쓰여진 해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해설에서는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해설하면서, 동시에 독자가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할 공안(公案)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요즈음에 QT를 위한 해설 성서가 유행인데, 좀 더 평이한 문체로 신학을 해설해 주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제안한다면, 다른 QT 가이드가 따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해설이 그러한 도움을 주려면 해설을 쓰는 사람이 필히 학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이한 신학 해설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천적인 적용을 위한 안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필진에 현장 목회자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설 성서의 생명은 얼마나 잘 활용되느냐에 있다. 아무리 학문적 평가가 좋아도 현장 안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실패작이 되고 만다.

### 난하주

그 외의 해설은 난하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본 상의 문제, 신학적 어휘 설명, 역사적 배경 설명, 번역 상의 문제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독자의 본문 읽기를 실제로 도와 주어야 한다. 이것도 역시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 잘 해 놓았다. 문제는 그 난하주의 해

설이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는 해설의 원본을 영역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난하주에 어떤 설명을 넣을 것인가의 문제는 철저히 한글 번역본(개역개정판 혹은 표준새번역 개정판)을 읽어 가면서 판단해야 한다. 우리 독자가 우리 번역 성서를 읽으면서 마주치게 될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개역개정판에는 아직도 한자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독자들에게는 그 정확한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어 사전을 떠들어 볼만큼 적극적인 독자들은 별로 없다. 따라서 난하주에서 그런 단어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말의 특성상 원문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해설이 필요하다. 책 마지막에 ‘용어설명’을 따로 두는 것은 좋으나, 하나의 책 안에서 특별히 사용된 용어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 하나, 독서의 편의를 위해서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즉,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단어 혹은 어느 어구가 난하주에서 해설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해당되는 단어나 어구 앞에 별표(\*)를 하든가, 혹은 글자 모양을 달리 하든가 해서, 본문을 다 읽은 후에 따로 해설을 보도록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천주교 200주년 기념 해설성서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독서 과정에서 매우 편리하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 표시가 나오면 난하주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다시 독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경우에는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읽으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난하주를 보는데, 설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본문을 다 읽고 나서 난하주를 따로 읽어보아야 할 경우도 많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독자에게는 해설의 유용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망하게 만드는 요소다.

## 관주

관주는 성서를 깊이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구다. 하지만 대개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관주를 난하주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지면이 낭비되었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난하(欄下) 혹은 난측(欄側)에 설명 없이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부록

책 마지막에 부록에서 여러 가지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인명과 지명에 대한 ‘찾아보기’는 특히 설교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어휘들을 설명해 주는 ‘용어설명’도 필수적이며, ‘성서지도’ 역시 필요하다. 방대한 성구 사전을 첨부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용어들만을 선택하여 요령 있는 ‘성구사전’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설교자들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도구다. 그 외에도 이것이 스테디 바이블임을 고려한다면, 성서의 ‘도량형’, 각종 ‘연대표’, ‘이스라엘의 절기’, ‘성전 모형도’, ‘회당 모형도’ 등등의 도구들이 제공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5.2. 신학적 입장의 문제에 대하여

한국판 해설 성서를 기획하려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신학적 입장의 문제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모두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특히 ‘개



론'은 지난 3백년 동안의 역사비평적 연구 결과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 좀 더 조심성 있는 접근을 취하고 있고,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좀 더 용감하게 학문적 연구 결과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은 본문에 대하여 해설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더 많이 반영되게 되어 있다.

필자는 지금 발행된 두 권의 해설 성서에 대하여 한국 교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적 경향의 목회자나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 왔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근본주의적인 교단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훨씬 안전해 보이기 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눈초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몇 년 전에 표준새번역 성서를 놓고 '성경공회'를 세우겠다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내세웠던 한국 교회의 보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두 권의 해설 성서의 출판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판 해설 성서를 내려 할 경우에 더 심각할 수 있다. 성서를 번역하는 데에도 신학적 입장을 숨길 수 없었다면, 성서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렇다면, 기획하는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인가? 신학적 입장에 있어서 중간 입장이라는 것은 없다. 중간 입장을 택하면 오히려 어느 쪽에서도 지지 받을 수 없다. 차라리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보수적 입장을 택할 경우,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비판 이전의 시대로 퇴보하는 일이 되므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반면, 진보적 입장을 택할 경우, 교회의 신앙을 해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보수적 성향의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우세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두고 볼 때, 이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런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두 종류의 해설 성서를 기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럴 경우, 예산상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하지만 한글판 해설 성서가 다시금 한국 교회를 분열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보수적 성향이 다수라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교회 현장의 요구를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에게 어느 하나를 강요하지 말고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문제를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적 입장을 공표한 해설 성서와 보수적 입장을 공표한 해설 성서를 따로 냈으로써, 신학적 다양성을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억지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던 찬송가 편찬 작업을 거울삼아, 좋은 기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6. 마치는 말

대한성서공회는 선교 2세기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한국 교회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기존에 출판된 두 가지의 해설 성서는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의 강단과 한국 교인들의 영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공헌을 할 것이다. 신학교 강의실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서 필자는 그 유용성을 충분히 체험해 왔다. 무책임한 상흔(商魂)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설 성서의 홍수 가운데서 독자들을 제대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것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독자의 가려운 곳을 충분히 긁어 주지 못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편찬 작업의 '노-하우'(know-how)를 기초로 하여 한국 교회에 좀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는 한국판 해설 성서가 발행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의존적인 한국 교인들이 스스로 성서를 읽고 말씀을 연구

하는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1세기의 역사 동안에 급성장한 한국 교회가 이제 2세기에 들어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말씀의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책임을 심각하게 느끼고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좋은 기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